
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평가

2005년 3월



목 차

I. 그동안의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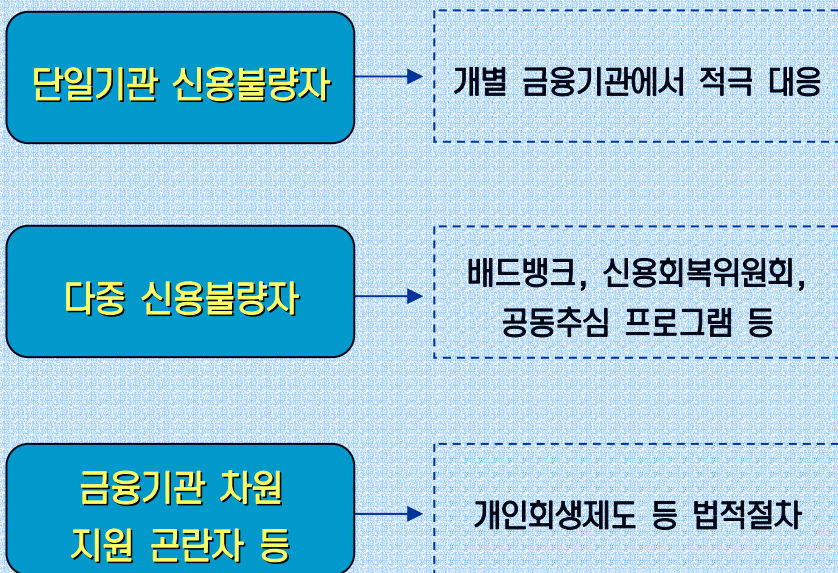
II. 평 가

III. 향후 대책방향

I. 그동안의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

지난해 3월, 관계전문가 및 금융권의 의견 수렴 ·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「신용불량자 종합대책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
① 신용불량자 특성별로 신용회복지원노력 강화



▶ 04년중 97만명 지원
(이중 75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추정)

	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지원	등록전 지원
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(04.5.20일 출범, 6개월간 운영)	20만명 추정 17만명	22만명 추정
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	26만명	
LG-산은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	12만명	
	약 97만명 추정	

▶ 04년중 법적절차 21,431명 신청

※ 개인회생제도(04.9.23일부터 시행) : 9,058명 신청

※ 개인파산제도 : 12,373명 신청

②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

-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채납자는 신용불량자에서 제외
- 금융권 연체율추이 등을 보아가며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검토



- ▶ 04.3월말부터 세금채납자는 신용불량자에서 제외
- ▶ 04.12월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(05.4.28일부터 시행 예정)

③ 기 타

-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을 지원
- 개인신용정보관리 강화 등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
-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



- ▶ 개별금융기관,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중
- ▶ 개인별 채무상환내역정보 관리,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
- ▶ 04.3.18일부터 금감원내 불법추심행위 신고센터 운영중

II. 평가

1. 신용불량자 감소세로 전환

- 04.3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수립이전에는 월평균 7만명 수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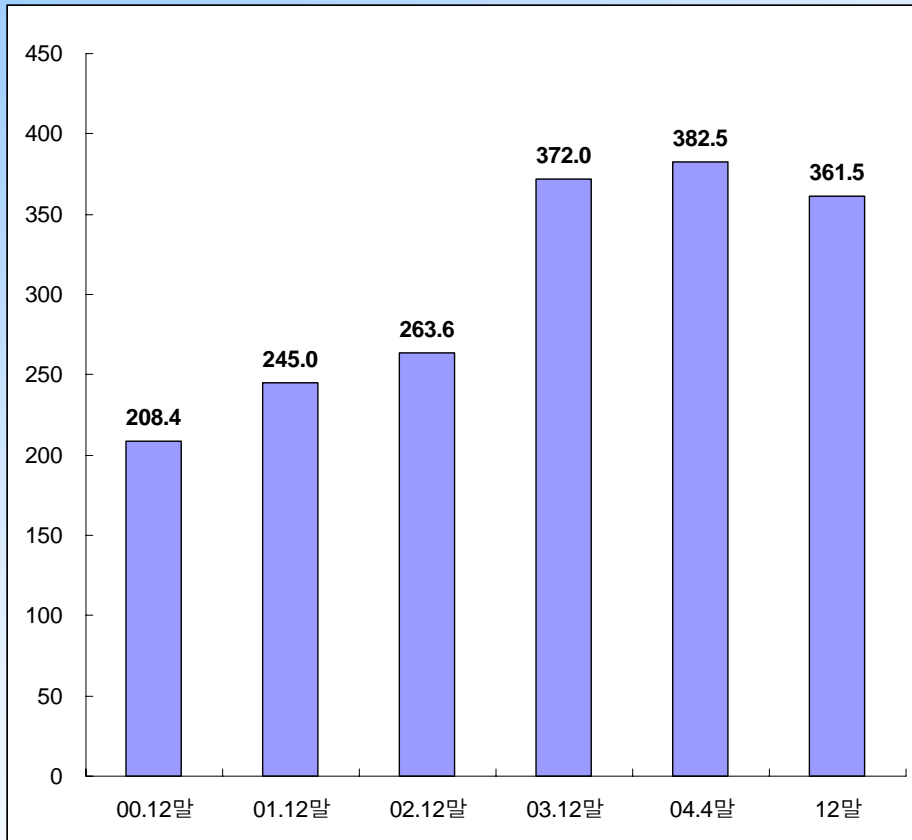
※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 (단위 : 만명, 세금체납자·사망자 정비 등 특이요인 제외)
: (03.1/4) 10.7→(2/4) 8.9→(3/4) 9.2→(4/4) 7.2→(04.1/4) 6.6

-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04년중에도 월평균 5~8만명 수준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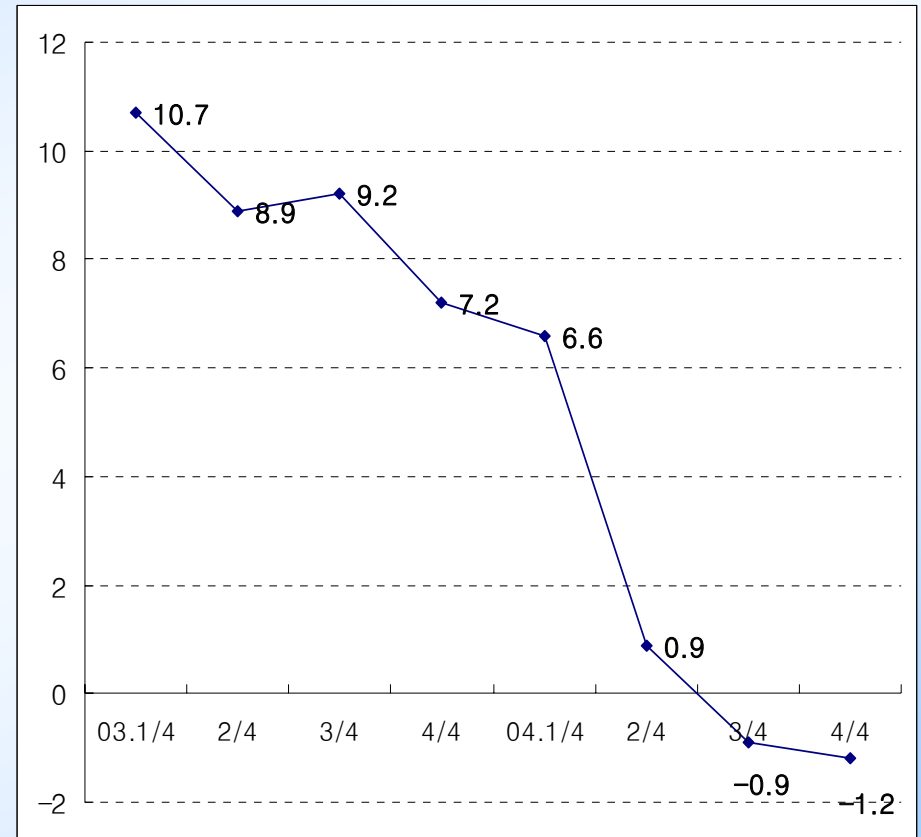
- 배드뱅크 출범(04.5) 등으로 대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04.6월부터 감소추세로 반전

※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 (단위 : 만명, 세금체납자·사망자 정비 등 특이요인 제외)
: (04.1/4) 6.6→(2/4) 0.9→(3/4) △0.9→(4/4) △1.2

< 신용불량자 등록인원 현황 (만명) >



< 신용불량자 월평균 증감 추이 (만명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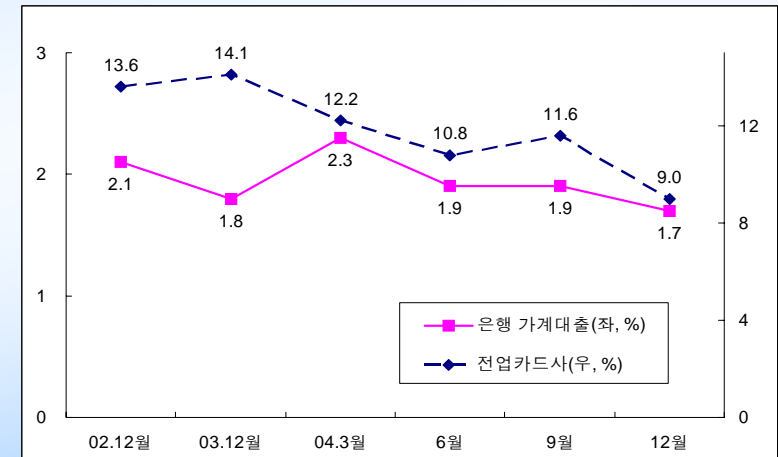


※ 세금체납자 제외(04.3말 15만명),
사망자 정비(04.5~12월중 12만명) 등 특이요인 제외

2. 도덕적 해이의 효과적인 차단

- 대책 초기,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
- 자기책임원칙에 기초한 신용회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 → 금융권 연체율 하향 안정

< 은행, 카드사 연체율 추이(%) >



3.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대한 금융권의 공감대 확산

- 620개 금융기관 참여하여 배드뱅크 설립·운영
- 신용회복위원회의 참여 금융기관 대폭 확대

※ 3.10일 대책 이후 3,429개 추가 가입 (04.12월말 현재 3,614개 가입)

III. 향후 대책방향

- 신용불량자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
- 한편,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다수 존재 →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



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대책 마련·추진(3월중)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청년층(학자금 연체, 군복무자 등),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

② 금융권에서 공동추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유도

③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